

#면앙정가(俛仰亭歌)-송준

無等山(무등산) 흐 활기 뒤흔 동다히로 버터 이서
 무등산 한 줄기가 동쪽으로 뻗어 있어,
 멀리 세쳐 와 霽月峯(제월봉)이 되어거늘,
 (무등산을) 멀리 떠나 와서 제월봉이 되었거늘,
 無邊大野(무변대야)의 모습 짐작 흐노라
 끝없는 넓은 들에 무슨 생각을 하느라고,
 일곱 구비 흐든 | 움쳐 뜨들뜨들 버려는 듯.
 일곱 굽이가 한데 움츠리어 우뚝우뚝 벌여 놓은 듯,
 가운데 구비는 굽기 든 늘근 놓이
 가운데 굽이는 구멍에 든 늙은 용이
 선잠을 갓 깬야 머리를 안쳐시니.
 선잠을 막 깨어 머리를 얹어 놓은 듯하다.
 너럭바위 우희 松竹(송죽)을 헤치고
 넓고 평평한 바위 위에 소나무와 대나무를 헤치고
 亭子(정자)를 안쳐시니 구름 탄 靑鶴(청학)이
 정자(면앙정)를 앉혀 놓았으니, 구름을 탄 푸른 학이
 千里(천 리)를 가리라 두 노래 버렸는 듯.
 천 리를 가려고 두 날개를 펼친 듯하다.
 玉泉山(옥천산) 龍泉山(용천산) 느린 물히
 옥천산 용천산에서 내리는 물이,
 亭子(정자) 앞 너른 들히 울울히 퍼진 드시
 정자 앞 넓은 들에 끊임없이 퍼져 있으니,
 넘거든 기노라 프르거든 회지 마나
 넓고 길고 푸르고 희구나
 雙龍(쌍룡)이 뒤트는 듯 긴 김을 치 켜는 듯
 쌍룡이 몸을 뒤트는 듯, 긴 비단을 가득 펼쳐 놓은 듯,
 어드러로 가노라 모습 일 번얏바
 어디로 가려고 무슨 일이 바빠서
 닳는 듯 색로는 듯 밤늦으로 흐르는 듯.
 달려 가는 듯, 따라가는 듯 밤낮으로 흐르는 듯 하다.
 므소친 沙汀(사정)은 눈곳치 퍼졌거든
 물 따라 벌여 있는 모래밭은 눈같이 하얗게 퍼졌는데,
 어즈러운 기러기는 므스거슬 어로노라
 어지러운 기러기는 무엇을 어르느라(서로 정을 통함)하려고
 안즈락 느리락 모드락 흐트락
 앉았다 내려갔다, 모였다 흩어졌다 하며
 蘆花(노화)을 스이 두고 우러곰 좇으니고.
 갈대꽃을 사이에 두고 울면서 서로 쫓아다니는고?
 너른 길 밧기요 긴 하늘 아리
 넓은 길 밝인 긴 하늘 아래
 두로고 쏘준 거슨 뒤흔가 屏風(병풍)인가 그림가 아닌가.
 두르고 꽃은 것은 산인가, 병풍인가, 그림인가, 아닌가,

노픈 듯 느른 듯 굵는 듯 닳는 듯
 높은 듯 낮은 듯, 끊어지는 듯 잇는 듯,
 숨거니 뵈거니 가거니 머물거니
 숨기도 하고 보이기도 하며, 가기도 하고 머물기도 하며,
 이즈러운 가운데 일흠는 양향야 하늘도 것치 아니
 어지러운 가운데 이름난 채하여 하늘도 두려워하지 않고
 옷득이 섰는 거시 秋月山(추월산) 머리 짓고
 우뚝 선 것이 추월산 머리 삼고,
 용귀산 봉선산 불대산 어등산
 용구산, 몽선산, 불대산, 어등산,
 용진산 금성산이 虛空(허공)에 버려거든
 용진산, 금성산이 허공에 펼쳐져 있는데,
 遠近(원근) 蒼崖(창애)의 머문 것도 하도 할샤.
 멀리 가까이 푸른 언덕에 머문 것(펼쳐진 모양)도 많기도 많구나.
 흰구름 브흰 煙霞(연하) 프로니는 山嵐(산람)이라.
 흰 구름과 뿌연 안개와 노을, 푸른 것은 산아지랑로다.
 千巖(천암) 萬壑(만학)을 제 집으로 사마 두고
 수많은 바위와 골짜기를 제 집을 삼아두고,
 나명성 들명성 일히도 구는지고.
 나며 들며 아양도 떠는구나.
 오르거니 느리거니
 오르기도 하며 내리기도 하며
 長空(장공)의 썩나거니 廣野(광야)로 거너거니
 공중으로 떠갔다가 넓은 들판으로 건너갔다가,
 프르락 블그락 여트락 디트락
 푸르락 붉으락, 열으락 질으락
 斜陽(사양)과 섰거디어 細雨(세우)조차 뿌리는다.
 석양과 섞이어 가랑비조차 뿌리는구나.
 藍輿(남여)를 비야 타고 술 아리 구븐 길노 오며 가며 흐는 적의
 가마를 재촉해 타고 소나무 아래 굽은 길로 오며 가며 하는 때에,
 綠楊(녹양)의 우는 黃鶯(황앵) 嬌態(교태) 겨워 흐느껴야.
 푸른 버드나무에서 지저귀는 피꼬리는 흥에 겨워 교태를 부리는
 듯하구나.
 나모 새 즈즈지어 樹陰(수음)이 얼린 적의
 나무 사이가 우거져서 녹음이 울창한 때에
 百尺(백척) 欄干(난간)의 긴 조으름 내어 퍼니
 긴 난간에서 긴 줄음을 내어 퍼니,
 水面(수면) 涼風(양풍)이야 갓칠 줄 모르는가.
 물 위의 서늘한 바람이야 그칠 줄 모르는구나.
 즈 서리 싸딘 후의 산 빗치 錦繡(금슈)로다.
 된서리 걸힌 후에 산 빛이 수놓은 비단같구나.
 黃雲(황운)은 또 엇지 萬頃(만경)의 편거니요.
 누렇게 익은 곡식은 또 어찌 넓은 들에 퍼져 있는고?

漁笛(어적)도 흥을 계워 들릴 썩라 브니는다.
 어부의 피리도 흥에 겨워 달을 따라 부는 것인가?
 草木(초목) 다 진 후의 江山(강산)이 미물커늘
 초목이 다 떨어진 후에 강과 산이 파묻힌 느낌이거늘
 造物(조물)이 흰스하야 氷雪(빙설)로 꾸며 내니
 조물주가 야단스러워 얼음과 눈으로 꾸며내니,
 瓊宮瑤臺(경궁요대)와 玉海銀山(옥해은산)이 眼底(안저)에 버려세
 라.
 구슬로 만든 대(얼음으로 치장된)와 옥으로 만든 바다 같은 산(눈
 으로 덮인 산)이 눈 아래 펼쳐져 있구나.
 乾坤(건곤)도 가을 열사 간 대마다 경이로다.
 천지도 풍성하구나.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경치로다.
 人間(인간)을 써나와도 내 몸이 겨를 없다.
 인간 세상을 떠나와도 내 몸이 한가로울 겨를이 없다.
 이것도 보려 하고 저것도 드르려코
 이것도 보려 하고, 저것도 들으려 하고,
 바람도 허려 하고 들도 마즈려코
 바람도 쐬려 하고, 달도 맞이하려고 하니,
 봄으란 언제 줍고 고기란 언제 낚고
 밤은 언제 줍고 고기는 언제 낚으며,
 柴扉(시비)란 뉘 다드며 딛 곳츠란 뉘 끌려뇨.
 사립문은 누가 닫으며 떨어진 꽃은 누가 쓸 것인가?
 아춤이 낫브거니 나조히라 슬흘소냐.
 (자연을 완상하느라고)아침 시간이 부족한데 저녁이라고 싫을소냐?
 오늘리 不足(부족)커니 來日(내일)리라 有餘(유여)하라.
 오늘도(완상할 시간이) 부족한데 내일이라고 넉넉하라?
 이 뉘히 안자 보고 더 뉘히 거러 보니
 이 산에 앉아보고 저 산에 걸어 보니
 煩勞(번로)흔 只(직)몸의 버릴 일이 아조 없다.
 번거로운 마음이면서도 버릴 것이 전혀 없다.
 쉼 사이 업거든 길히나 전하리야.
 쉼 사이가 없는데 (누가 아름다운 자연의 길을 물으면)길
 이나마 전할 틈이 있으랴.
 다만 흥 靑藜杖(청려장)이 다 브디여 가노미라.
 다만 하나의 명아주 지팡이가 다 무디어져 가는구나.(자연 구
 경 하느라)
 술이 닳엇거니 벗지라 업슬소냐.
 술이 익었는데 벗이 없을 것인가.
 불늛며 특이며 허이며 이아며
 (노래를)부르게 하며, (악기를)타게 하며, 악기를 켜게 하며, 흔들며
 온가지 소리로 醉興(취흥)을 빚야거니
 온갖 소리로 취흥(술과 자연에)을 재촉하니,
 근심이라 이시며 시름이라 브터시랴.
 근심이라 있으며 시름이라 붙어 있으랴.

누으락 안즈락 구브락 저즈락
 누웠다가 앉았다가 구부렸다 젖혔다가,
 을프락 꼭람하락 노혜로 소귀니
 (시름)옴었다 휘파람을 불었다가 하며 실컷 노니,
 天地(천지)도 넓고넓고 日月(일월) 흥가하다.
 천지도 넓고 넓으며 세월도 한가하다.
 羲皇(희황)을 모를러니 이 적이야 기로고야
 복희씨의 태평성대를 모르고 지내더니 지금이야말로 그때로구나.
 神仙(신선)이 었더던지 이 몸이야 기로고야.
 신선이 어떠하든지 이 몸이야말로 그것이로구나.
 江山風月(강산 풍월) 거느리고 내 百年(백 년)을 다 누리면
 강산풍월 거느리고 내 평생을 다 누리면
 岳陽樓上(악양루상)의 李太白(이태백)이 사라 오다,
 악양루 위에 이태백이 살아온다 한들
 浩蕩情懷(호탕정회)야 이에서 더홀소냐.
 넓고 끝없는 호방한 회포야말로 이보다 더할 것인가.
 이 몸이 이렇 굶도 亦君恩(역군은)이샀다.
 이 몸이 이렇게 지내는 것도 역시 임금의 은혜이시도다.